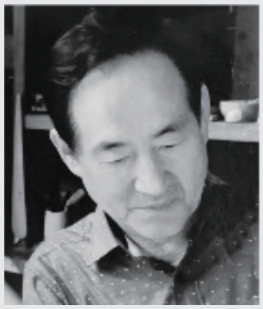

아름다운
이야기
84th





최남진

프로필(이력)

- 서울대 조소과 동대학원 졸
- 국전 조각부분 2회 특선 7회 입선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 개인전 4회 그룹전 다수
- 한국미술협회 및 조각회 등 회원활동 중
- 40여년 대학교수
- 정부로부터 황조근조훈장 받음



THE ARUMDAUN STORY

2023.10. VOL.84

교육부[유년부] 20

행복한 어린이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가 볼만한 곳 28

베트남
'호이안'



어부의 눈 04
동부디아코니아 앱 06
쉼터[행복의 방정식] 08
기고[아내가 변했다] 09
교구이야기[2교구 가족1구역] 10
연재[쇠둘레이야기] 12
신앙에세이 14
연재[전운성의 횡단여행] 16
포토테라피 19
교육부[유년부] 20
동부문학[조정희 권사] 22
연재[미음을 담는 이야기] 24
동부문학[최수경 집사] 27
가 볼만한 곳[베트남 호이안] 28
특집[부부 사진작가] 30
My Movie 33
인사드립니다[최창일 사무처장] 34
동부소식 35



순례자의 인생

'타향살이 몇해련가 손꼽아 헤어보니...' 1934년에 발표된 가요 '타향'의 첫 소절입니다. 발표 당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상황이 노래에 담겨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1년에 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1905년에는 65척의 배로 7,226명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매일 12~14시간 중노동을 하며 하루에 54전을 벌었습니다.

1905년 멕시코로 떠난 1,033명의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여 명의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해 이주했고 5,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1960년경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가 이주했습니다. 1962년에는 브라질 농업 이민을 갔습니다. 1998년 이후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자들이 몰렸습니다. 6 · 25 전쟁 후 한국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40%에 육박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가량으로 필리핀(170달러), 태국(260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살에 남의 나라로 팔려갑니다. 그는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거대한 세계무역의 중심 지역이었기에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파고 사는 상업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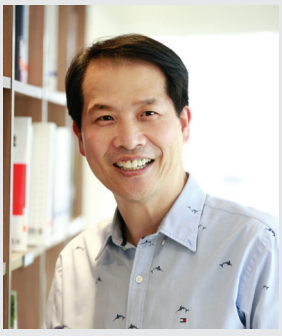
요셉은 17살의 젊은 나이라 좋은 값에 팔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 와서 종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가족과 고국, 자기의 꿈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 간다는 것은 무서운 공포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남의 나라에 팔려온 것에 대해 한탄하고 분노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의 자리인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7년 기근의 때에 찾아온 가족들과 재회하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이주였지만 요셉이 머문 곳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땅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낸 요셉으로 인해 기근에 처한 애굽과 인근 나라가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집니다.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민자와 순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외국인'(크세노스)은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나그네'(팔로미코스)는 잠시 자기 집을 떠난 자, 다른 말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는 사명자들입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뼈를 본향에 묻어 달라 요청하며 이민자가 아닌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례자와 이민자는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에게 이민자라고 하지 않고 순례자라 부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 이곳에서 이민자로 사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례자를 '디아스포라' 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란 '씨앗을 흩어서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목적을 가지고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순례자로, '복음의 씨앗'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창50:20)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보냄 받은 자리에서 많은 생명을 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려진 목적은 총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꿈꾸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심겨진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머문 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 바랍니다.



글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동부디아코니아 앱을 소개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꿈 동부디아코니아!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동부디아코니아 앱이 함께 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1교구 3040-1 가족구역 박영한 집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으로 동부디아코니아 앱을 개발하게 되어 개발 간증과 앱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새벽예배 기도 시간 저를 3번이나 살려주시고 이곳 춘천 동부교회로 이끌어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하나가 모두 디아코니아와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제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봉사를 통한 기쁨을 알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사랑의 선순환이 나와 이웃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전문성과 고백성은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였고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디아코니아 3단계를 접수하게 되었고 주님이 지금까지 연단하며 경험하게 해주신 IT 기술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디아코니아 앱 개발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Android와 IOS 앱 개발은 처음부터 버그가 많았고 맥북 구입 등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진행하기에는 이 길이 맞나? 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힘든 일이었지만 새벽에 들었던 기도 응답을 믿고 집요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금전적인 문제도, 개발 진행하며 어려웠던 일들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역과 믿음, 연단의 과정을 알게 하시어 더 성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제작은 김소영 관장님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응답이고 제가 해야 할 사역이라며 김한호 위임목사님을 새벽마다 힘들게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온화한 모습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앱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정훈 목사님과 김소영 관장님 외 디아코니아 각 기관장님들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앱입니다. 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김과 봉사로 단합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한 세상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디아코니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부디아코니아 앱 대표 기능]



1) HELP Service

HELP 버튼 클릭 시 동부디아코니아 사무처 전화(033-242-0088)로 연결되며 사무처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과 역경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추가 기능으로 HELP Service 이용시 위치 정보가 저장되며 위급 상황 시 위치 정보로 119 연계 가능)



2) Diakonia Membership VIP 카드

디아코니아 멤버쉽 VIP 카드는 가맹점에 해당 카드 제시하면 가맹점 V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로 디아코니아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해 주시는 디아코노스들에게 섬김의 감사와 사랑의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는 디아코니아 앱 설치 시 모든분들께 VIP 멤버십 이용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3) 가맹점 정보



동부디아코니아 멤버쉽 VIP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로 조윤숙 집사님과 노석호 집사님의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 10여곳의 사업체에서 가맹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조윤숙 집사님은 소양강 다슬기 식당에서 동부디아코니아 VIP 카드 제시시 테이블당 계란말이 서비스를, 노석호 집사님은 우미닭갈비 본점에서 동부디아코니아 VIP 카드 제시시 테이블당 음료수 한 병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맹점 정보에는 VIP 혜택 외에도 가맹점 위치, 전화번호 및 찾아오실 수 있게 네이버 지도와 연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부디아코니아를 위해 헌신하시는 디아코노스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점주분들의 후한 서비스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자원봉사 신청

현재 남부노인복지관과 꿈나리 도서관을 우선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진행 예정이며 그 외에도 춘천시자원봉사, 1365 자원봉사와도 연계하여 동부디아코니아 앱을 통해 디아코노스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후원신청

동부디아코니아 홈페이지의 후원신청 메뉴로 연결되며 기관과 협의 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로 편리하게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 주시길 소망합니다.

6) PUSH 서비스

동부디아코니아 앱을 설치하시면 디아코니아 PUSH 서비스를 받게 되십니다. PUSH 내용으로는 실시간 긴급 자원봉사 신청, 어려운 이웃돕기, 디아코니아 공지 등이 있을 예정이며 해당 PUSH 서비스로 가맹점을 이용하는 동부디아코니아 앱 사용자들에게 디아코니아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전문성 외에 고백성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박영한 집사

아래 동부DIAKONIA 가맹점 신청 QR 코드로 신청 가능하시며 최창일 집사 010-3001-8247로 신청자분 성함/연락처/가맹점 이름/가맹점 주소/가맹점 전화번호/VIP 혜택 서비스 내용/가맹점 사진을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가능 합니다. (가맹점 사진 없을 시 자체 제작해서 사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동부DIAKONIA 가맹점 신청]

ANDROID APP

[ANDROID APP DOWNLOAD]]

IOS APP

[IOS APP DOWNLOAD]



아내가 변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안방 문은 굳게 닫혀있다. 한여름이라 높은 실내 온도 때문에 답답함도 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월부터 아내는 새벽기도를 나간다.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4시 50분 정도이고 돌아오는 시간은 6시 30분 쯤인데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깰까봐 배려해주는 것이다. 시키지도 않은 새벽기도를 나간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특별할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 육십을 앞두고 비로소 찾은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아침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로서도 이른 시간부터 아침인사를 나누며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이 결혼 30년이 넘도록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새벽기도를 나가기 전 우리부부는 생활패턴이 정반대였다. 늦어도 아침 8시면 학교에 도착하게 부지런을 떠는 나로서는 아침시간이 아주 바쁘게 지나갔고 상대적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던 아내는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서로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없는 것도 조용한 집안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더 고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내가 아침잠을 멀리하며 교회로 나간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움을 구하는 아침기도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이다. 시댁과 친정의 연로하신 어른들과 식구들의 건강을 기도로 의지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 즐거움을 찾은 것은 아닐지. 아니면 기도해야할 내용이 많아서는 아닐지. 나에게도 경험이 있다. 30여 년 전 모든 일이 얽히고설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나홀로 교회를 찾아 갔던 일이다. 불 꺼진 교회 안에 혼자 앉아 기도인지 중얼거림인지 구분도 안 되는 혼잣말을 하며 얼마를 지나고 나니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만신창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확실한건 마음의 간절함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그 간절함도 이루어졌다.

성령의 이끌림을 즐거워하며 새벽을 맞이하면 어떨까? 아침시간을 좋아하게 되니 아내도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함께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도 생겼다.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이다. 기도로 충만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아내의 변화를 한 번 더 칭찬한다. 또 그 모습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아내가 내일부터 함께 새벽기도를 나가자고 하면 어쩌나!

글 유기억 집사



이민

"씨앗을 보내도 될까? 야생이라 여기서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땅에서 자라겠어?" 이미 흰 민들레를 밭고랑에 가득 심어 싹을 냈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늦은 봄, 하얗게 바랜 씨앗이 바람에 풀풀 날렸다. 할미꽃 씨앗은 봉투 속에 넣어져 바다를 건넜다.

씨앗을 보낸 것도 잊혀 질 무렵 아기 손바닥 같은 싹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이젠 캐나다 땅에서도 할미꽃을 볼 수 있을거라고 했다. 한국보다 봄이 더디게 시작되는 곳이다. 수십 년 전 어렵사리 뿌리를 내린 친구처럼 낯선 땅, 낯선 볕 아래서 꽃을 피워냈다. 모질게 버텨온 젊은 날과 까맣게 잊고 산 어린 날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꽃 앞에서 고향을 본 듯 마음이 들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 밭에 친구는 고향을 심었다. 고향 땅에 두고 간 자람의 기억과 조각보처럼 나누어진 추억들을 심었다. 추억에도 싹이 돋을까?

글 **전경해 권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교구 가족1구역

안녕하십니까? 2교구 가족1구역 구역장으로 섬기는 김영득 장로입니다. 구역장으로서 부족하지만 구역원들의 신앙의 깊이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구역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경험도 없고 생각지 못했던 구역장 권유였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과 대면해 구역의 사정을 알고 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38년 전 초신자인 저희 부부가 큰아이를 낳고 발령받은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수업 후 구역모임을 가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는지…. 모두 교원 사택에 살고 있었으니 핑계를 대며 빠질 수도 없었고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시키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구역장,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능력과 간증에 놀라고 부러웠습니다. 구역예배를 빠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역장님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구역장에게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보답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구역원의 사랑과 배려를 제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으로 이사 오면서 등록한 춘천동부교회에서도 30년째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할 적마다 구역이 바뀌었으나 그때마다 구역장님들의 배려와 기도 덕분에 믿음의 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연세 많으신 구역장님과 구역원이 함께 새벽기

도를 다니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중 보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 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구역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구역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구역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가족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임명받은 가족 구역 10명의 구역원 중 8명이 타 교회로 옮기고 2명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은 집사님 부부도 몇 달 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달라시는 목사님의 부탁을 비로소 이해하며 처음 구역장을 맡게 되는 부담감을 떨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19년부터 전성민 목사님이 양성우 집사 부부와 오세용 집사 부부를 저희 구역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을 돌며 구역예배가 부담되지 않도록 사정에 맞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족한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믿음이 신실한 젊은 구역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2021년 오세용 집사님은 3040 구역장으로 임명되어 떠나고 박용환 장로님 부부, 주성환 집사 부부, 임돈혁 집사와 정경희 집사가 한 구역원으로 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이듬해 박종영 장로님 부부까지 구역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역원들은 교회 활동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벽예배와 새벽특송, '찾아가는 농어촌 교회 방문'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숨은 일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구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2023년, 구역원 중 박용환 장로님을 가족2 구역장으로 임명하며 주성환 집사님 부부를 함께 보내드리며 나눔의 기쁨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가족2 구역도 또 다른 구역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농촌교회 방문 때 우리 구역원은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녀왔습니다. 마음과 물질을 나누고 서로 아껴주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구역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역원들이 직장과 사업, 개인 사정으로 바쁘고 모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가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교회 내 맡겨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원 모두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역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교구 가족1 구역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 2교구 김영득 장로



쇠둘레(철원) 이야기

얘들아, 이사가 아니라, 롱 스테이(Long stay)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편집부원이자 꽤 오랜 기간 동안 육아 에세이를 연재한 김지원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2월부터 정든 춘천을 떠나 철원(옛 지명 '쇠둘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주말 부부냐, 가족 이사냐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다면 제 글이 약간의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런 사정이 아니시더라도, 평소 철원에 익숙하시거나 생소한 성도분들께서도 약간의 흥미가 느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부부 교사들은 매년 인사철에 불안해지곤 합니다. 강원도가 워낙 땅덩이가 넓어, 자칫 이산 가족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 2월초 저는 철원, 집사람은 태백으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3주 뒤에 학기 시작인 상황에서 춘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저희 가족은 혼란의 도가니탕이 되었습니다. 8살 2명, 6살 1명을 육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만 덜렁 철원에 갈 수 없는지라 급히 집사람은 휴직을 신청했고, 저를 따라 모든 가족이 철원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직을 오래 할 수는 없기에, 자칫 올 한해만 철원에서 지내고 내년엔 집사람이 복직하는 태백으로 또 전 가족이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원에서 살 집은 발품을 팔아 천신만고 끝에 구했지만, 저희가 가장 미안했던 대상은 결국 세 아이들과 그동안 춘천에서 손주들을 보살펴주셨던 양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춘천에서의 마지막 날, 철원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저는 차창 밖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가 울어? 우리 이제 춘천에 못 오는 거야?"

"아니야. 우리 금방 올 거야. 철원에 가서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여행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짧으면 1년 남짓, 우리 가족의 쇠둘레에

서의 롱스테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철원은 쌀이지

어엿한 철원군민이 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러 동송읍 사무소로 갔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고 하자, "애들이 많이 왔네."라며 웃으시는 직원분을 보고, 우리가 인구가 부족한 철원에 나름 기여한 것 같은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전입 기념으로 가족 5명에 비례하여 철원군 지역상품권과 종량제 봉투, 그리고 '쌀' 한 포대를 주셨습니다. 철원 하면 쌀, 쌀은 역시 철원 아닙니까? 철원의 광활한 평야에서 한탄강의 기운을 받아 수확된 철원 쌀은 명품입니다. 교우분들께서 혹시 철원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음식점을 가시더라도 밥맛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철원 내 모든 음식점은 철원 쌀을 쓰기 때문이죠. 사실 이사 오기 전, 아직 남아있던 다른 지역 쌀이 꽤 많이 남아 있었는데, 괜히 미안해져서 후딱 먹어 치우고 냉큼 철원 쌀을 샀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철원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죠!

학교와 교회를 찾다. 뿌리를 내리다.

이곳의 여러 산적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는 쌍둥이들의 학교를 정하는 것과 섬길 교회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거주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둘 중에서 저흰 전교생 60명 남짓의 작은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왕 시골로 간 것, 아이들에게 소규모 학교에서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고, 작은 학교만의 여러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학년 1개 반 총 12명의 교실에서 쌍둥이들은 유치원 때와는 사뭇 달라진 낯선 환경에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름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철원은 인구수에 비해 교회수가 많은 편입니다. 동네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제한된 정보 내에서 어떤 교회를 섬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3월에는 교회를 여러 군데 방문해가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인심 좋고, 말씀 좋은 주일 예배 기준 40명 남짓되는 한 작은 교회에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처음 갔던 주일이 3월 첫 주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필 입학 기념이라고 예배 중 초중고 아이들에게 직접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보는 아이들(저희 아이들) 3명이 보였고, 여분으로 준비한 용돈이 있으셨는지 즉흥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목사님의 넉넉한 마음과 작은 교회가 주는 평안함에 이끌려, 열심히 이곳에서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회 출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

어딜 가든, 무엇이 걱정이랴.

이제 철원에서 산 지 딱 반년이 되었네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 처음에는 모든 거리와 풍경들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젠 오히려 내년에 혹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못내 아쉽기도 하네요.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시편 91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에게 붙들려 있는 축복받은 자녀들이기에, 앞으로도 걱정 없이 철원 생활을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글 김지원 집사



다시 한 번 웃고 싶다, 크게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가족들과 함께 골랐다.

누구나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사진의 표정이 평안한 쪽을 선택했다. 스냅용 사진을 확대해달라고 스마트 폰으로 영육간 절친 J기자에게 보냈다. 그 사진도 J기자가 찍은 거였다.

"장수 사진용으로 부탁해"

장수 사진이나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면 오래 산다고,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기는 어른들이 말씀하셨었지.

어릴 적 시골 할아버지 댁 뒤란 툇마루엔 관이 있었다. 숨박꼭질을 할 땐 그 관 속에 숨었다가 할아버지 집에서 장난하면 안 된다고 어른들께 혼구녕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왜 <장수사진>이 주는 느낌은 친구와 날 침묵케 하는가. "기다려. 나중 퇴원 후에 다시 잘 찍을게"

남편이 처음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어야 했다. 입원 한 달여만에 다행히 염증이 모두 치료되어 퇴원하면서 우리 부부는 희망에 부풀기도 했지만 하룻밤을 지나지 못하고 말았다. 남편은 밤새 허공만 응시하더니 말로만 듣던 섬망 증상을 보였다.

그토록 갈망하던 퇴원 생활 5일을 힘겹게 보내고 다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재입원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듯 산산조각이 났다.

퇴원 또 입원이 반복되면서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나를 쇠사슬로 얽는 것 같았다. 다행히 남편이 퇴원을 한다 해도 과연 집에서 가족의 돌봄 속에 생활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가족들의 지배적인 판단이었다.

남편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린 어느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별할 수 있을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라지만 매화꽃이 활짝 만개하였다가 하룻밤 비바람에 꽃비로 흩날리는 허무함 같은 거라니! 생과 사 앞에서 패대기 쳐진 인생의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남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즐겨한다.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흉보는 일일지라도 곁눈질로, 상관없는 남의 가방을 힐끔거리며 신날 것이다. 풀뿌리족에 대해서야 호기심이 들지 않겠지만, 스타나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일상마저도 궁금하다. TV에서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시청율이 높고 큰 인기를 얻는다.

그들의 가방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방을 엿보는 대중은 무엇을 보려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의 웃음이나 자랑거리만 구경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 버리고 말 것이었다. 인생은 자칫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이나, 남을 흉내내어 허접쓰레기만 싸다가 끝낼 수도 있음은 아닐지.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았거나, 신바람 나게 살았거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불사조처럼 살아온 어리석음이거나, 이도 저도 아닌 하루살이처럼 살았을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희락에도 고통에도 조용히 자신을 가다듬는다지만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가고 밀려오고 끝 없는 삶의 되풀이에 허겁지겁 넋을 빼고 살며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끈을 놓는다는 것은 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이 두렵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태의 끈을 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병원생활에 필요한 몇가지 물건을 준비하여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잠깐 공지천 호숫가 의자에 앉았다. 무엇인가 가슴 속에 가득 차서 답답함을 그나마 호수에 풀어내고 싶었다.

혹시라도 누구와 부딪칠까봐 호수 쪽으로 앉았다. 나의 삶이 공백임을 느낀다. 공백이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 마당 화분이 지나 겨울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음을 보면서도 꽃 몇송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보니 빈 화분에 채송화가 작년에 스스로 떨어뜨린 씨앗의 싹을 틔우고 여름에 보니 꽃도 피었다. 신통하였다. 채송화는 죽은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다.

호수에 바람이 분다. 윤슬이 잔잔하게 일어난다. 노을에 물결이 반짝인다. 해가 진다. 마음이 바빠진다. 나는 병원으로 간다. 한 살이라도 젊어 더 많은 지인의 배웅을 받으며 천국으로 떠나는 것도 좋은 거지. 밥 한 그릇 더 먹고 한 벌 옷을 더 입고 몇 년을 더 살면 뭐가 다를까. 그럼에도 장수 사진과 수의의 힘으로라도 한 번 더 웃고 싶다.

딸아이는 엄마 아빠는 누워만 있어도 부르면 대답해주고 마주 보고 웃어주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했다.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바랬던 마음이 아니었던가.

요즈음 거의 누워만 있는 남편, 우리 부부는 과거 이야기부터 앞으로 이야기까지 주고받고... 그동안 장식장에만 넣어두었던 그릇들을 꺼내어 일상용으로 사용한다. 그릇이 달라지면서 그릇들이 부딪치는 소리들까지도 기분이 좋다.

거의 외출이 없는 나는, 보이기 위한 삶이나, 박수를 받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마주치며 한 번 더 웃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왕이면 눈물을 찔끔거리며 뱃살이 찢어질 것처럼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글 임양숙 권사

세계문명기행

전운성의 횡단여행

거대한 아마존강 만리 횡단을 말하다.



도시로 떠난 원주민의 폐가

이번 호에는 아마존강 횡단 기록을 담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달라스에서 환승하여 페루 리마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나 항공기로만 접근이 가능한 페루의 인구 약 50만 명이 사는 스페인풍의 아키토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마존 정글의 수도로 해발고도 104m입니다. 이곳을 출발하여 약 4,000km, 1만리 떨어진 대서양 안의 브라질 벨렘에 이르는 아마존강 횡단을 시작합니다. 페루는 고대 잉카문명을 꽃피운 안데스 고원 산악국가라는 강한 선입감이 있어 국토의 약 60%가 평탄한 아마존 열대우림 정글 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웃 콜롬비아 등과 같이 반정부군이 활동하기 적당한 강과 정글이 얽힌 지역이었음을 실감합니다.

페루 안데스 고원의 아레키파에서 발원한 아마존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키토스 밀림 지역부터 돌아봅니다. 유럽 등지에서 온 여행자들과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빽빽하게 들어찬 열대우림과 짙은 회색의 개흙으로 덮인 몇 개의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TV에서 보던 대로 그들은 원시생활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정글 한가운데 나무를 베어 만든 마당 주위에 풀을 얹은 수상가옥과 윗옷 없이 생활하는 여인들, 독침이나 활로 사냥하는 성인남자들, 나무늘보를 친구삼아 노는 어린 아이들,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육식성 물고기 피라냐 낚시를 하고 삽니다. 이곳에서 원주민들이 잡은 2~3m의 아나콘다를 목에 걸어보며 생생한 정글 맛에 빠져듭니다.



나무늘보를 안고 있는 원주민 어린이

그러나 많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백여 호에 이르렀던 집들은 이제 10여 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글(離jungle) 현상은 우리가 경험한 이농현상 이상이었습니다. 문명의 맛을 조금이라도 접촉한 마을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 생활에 적응할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이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어 이키토스에서 승선한 작은 배에서 조금씩 큰 배로 바꿔 탔습니다. 페루와 콜럼비아, 브라질 국경이 만나는 트라이앵글을 지나 브라질로 입국하면서 강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큰 지류 200여 개가 합세하면서, 아마존강은 그야말로 유럽의 지중해와 진배없는 남미대륙의 내해(內海)입니다. 대서양에서 내륙으로 약1,500km 이상 깊숙한 곳까지 5만 톤급 이상의 큰 배가 꼬리를 물고 드나드는 거대한 강입니다. 최근 경제 파탄으로 아마존 유역 베네수엘라 난민의 밀입국과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항행하는 배에 오른 브라질 특수부대와 경찰의 선상 검문을 두어 번 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체제와 제도를

택했느냐에 따라 생긴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마존강을 따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브라질과 페루, 에콰도르 등 자국의 하천을 이용하는 외국선박의 항행을 자유화한 완전한 국제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을 따라 여객실 대신 갑판 위에 주렁주렁 과일이 맺힌 듯 수백 개의 컬러플한 해먹이 걸린 광경은 이곳 적도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항행하는 여객선을 향해 금방이라도 물결에 뒤집힐 것같은 작은 카누 백여 척에 어린아이 등을 싣고 목숨을 건 듯 따라오며 먹을 것 등을 달라는 애절한 모습은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승객들은 물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먹을 것이나 옷 등을 넣어 강으로 던집니다. 이것들을 먼저 건지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이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오, 주여! 이들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아마존강 중류의 마나우스 항

최근 나일강과 아마존강 중에서 어느 강이 더 긴지에 대한 양쪽 지역의 자존심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지리학회에서 아마존강이 나일강보다 긴 세계 최장의 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아프리카 나일강의 발원지 빅토리아 호수를 찾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이라고 여기저기에 써 놓은 안내판을 거둘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광대한 아마존강 유역면적은 세계 담수량의 20%를 담고 있습니다. 유량면에서 미시시피강, 나일강, 양자강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니 그 규모에 혀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다시 맞는 항행 중 밤하늘의 둥근달은 크게 달무리를 그리며 강을 밝혀줍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정글 안에서 생사를 가르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섬뜩해짐을 느낍니다. 그간의 무탈한 여행길이 되도록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에 절로 두 손이 모아 집니다. 이렇게 체험한 다양한 아마존강 횡단 얘기를 한편의 지면에 담기 어려워 난생처음 선상에서 쓴 '아마존 강아,,,' 라는 제목의 시(?)로 못다 한 얘기를 뭉뚱그려 봅니다.

험준한 안데스 산맥 깊은 골짜기에서 태어나
각 골짜기에서 나온 수많은 지류를 형제 삼아
먼 길을 함께 떠나는 아마존강아,,,

물결 따라 대서양 가는 광대한 정글을 키워
햇살 만나 무수히 많은 생명체를 낳고 키우는
아마존강아,,,

정글 속의 원시와 강변의 도시 문명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흐름 속에 벌어진
문명의 갭을 안고 안절부절 하는 아마존강아,,,

억수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정글 속을 훑고
건기에는 언제 그랬느냥 길손을 반갑게 맞아주는
광활한 정글 속을 도도히 흐르는 아마존강아,,,

하긴 너의 넓고 길고 깊은 대륙의 내장인
네가 없었으면 태평양과 견주는 대서양이 있기나
했을까
대양을 잉태하고도 무심히 흐르는 아마존강아!!!

글 전운성 집사



구걸을 위해 여객선을 향해 오는 카뉴



행복한 어린이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생한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한 다윗, 믿음으로 예배한 여호사밧, 함께 예배드린 베드로와 고넬료. 세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연합하여 본당에서 여는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율동팀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위임목사님의 재미있는 말씀도 듣고요. 부모님을 초청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같은 예배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 같은 예배의 섬김이들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먼저 율동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내년 어린이대회 율동팀의 데뷔조(?) 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반주로, 중등부에서는 드럼으로, 유치부에서는 늦은 밤까지 풍선 장식을 도와주셨고요. 공룡 옷을 입고 예배를 도우신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겠지요. 교회 식당에서의 점심식사는 또 얼마나 맛있었게요. 지난 모든 성경학교 중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지게 해주는 사람들, 사랑 많으신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은 생각만 해도 그저 눈물이 납니다.

여는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 교회 식당에서 줄을 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일자 앞머리에 눈이 동그란 1학년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재미있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예배만 드렸는데, 벌써 재미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미있다는 어린이의 고백은 단순한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6월 넷째 주부터 여름성경학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물놀이도 갈 거예요." 물놀이 소식에 유년부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물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니 꼭 지켜야지요. 아무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비 내린 날이 20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세요. 제발요!"

성경학교 날짜가 다가올수록 비 소식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놀이하는 시간에는 해가 구름 뒤로 쏙하고 숨어서 시원하게 놀았고, 물에서 나온 후에는 32도로 따뜻해서 춥지도 않았답니다. 뜨끈한 컵라면도 먹고요. 마음이 넉넉하신 권사님께서 달큰한 옥수수를 삶아주셔서 돌아오는 차에서까지 야금야금 다 먹었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일 수도 있지만, 제 안에 품은 작은 꿈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어린이부서가 연합하여 만드는 여름성경학교, '동.부.키.즈.썸.머.캠.프'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먹고, 자고, 말씀 배우고, 물놀이도 하고요. 저녁집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꿈꿉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식당, 안내 등의 스텝으로 섬기며 자녀를 품에 안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전체가 들썩이는 그런 성경학교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겠지요? 그 첫걸음이라 기대하며 이번 연합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꺼내고 보니 작은 꿈이 아닌 너무 큰 꿈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작년 여름성경학교의 여는 예배도 '어린이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당시 유년부 담당 교역자는 공석이었고, 저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죠. 초등부와 소년부 담당교역자 분들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쓰고 맨 뒤에 앉아 예배에 참석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린이 연합예배를 꿈꾸고 있었는데, 보게 하시니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의 건강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사역에, 어린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그 역사의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보는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린이들이 행복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행복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글 나미선 전도사

산매화

조 정 희 권사

어느 산모퉁이
양지 바른 비탈 아래
세찬 바람 이겨내며
터질 듯 고개 내민 꽃봉오리 망울망울

모진 추위 이겨내고
속살 들어낸 탱글한 하얀꽃
네 여린 피부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까

봄소식 꽃잔치 곱게 핀 흰 매화
요동치는 내 가슴 설렘으로 가득하네
게으름 피운 이 마음 부끄러워 어찌 할까
빚진 마음 달래며 마음의 때 씻어보네

[봄내 실버문학 수록]



코로나로 다져진 가족 사랑

코로나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족 간의 자유로운 왕래까지도 조심스러웠던 어느 날이었다. 봄이 오는 소리도 향긋한 꽃내음도 만끽하지 못한 채 움츠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아들과 며느리의 깜짝 서프라이즈가 펼쳐졌다. 예고 없는 극적 상황에 놀라면서도 이미 내 몸과 마음은 행복한 감성에 젖어 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고맙고 든든하고 사랑스럽게 느꼈던 것은 며느리의 주도로 이루어 낸 깜짝 이벤트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밤새 의논을 했는지 속초 해안가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여행길에 나섰다. 차창 밖 먼 산야에 펼쳐지는 봄의 향연이 끝없이 시야에 스쳐 지나간다. 질주하는 차량 행렬들을 보니 문득 저들 또한 얼마나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감으로 들떠 있을지도 모른다는 동질감에 빠져들 즈음 벌써 홍천에 들어선 것 같았다. 아들이 홍천 유적지 한 곳을 탐방하고 가자고 한다. "엄마, 좀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몸이 괜찮으시겠어요?"하기에 매일 걷기 운동으로 다진 몸이라 "좋아, 따라다닐 수 있어." 들뜬 마음에 대답해 놓고도 내심 한 코스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신의 모습에 멋쩍은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홍천 척야산수목원'에 도달했다. 그대로 지나쳤으면 후회할 만큼 아름답고 의미가 담긴 곳이었다. 산책길을 따라 팔렬각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울긋불긋 싱그러운 봄꽃 향연이 장관이었다. 5월 초순이 절정이라는데 때맞춰 갔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봄의 향취에 한껏 젖어 든 감동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문을 읽어보았다. 일제 강점기 순직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관민 합동으로 유적지 조성은 물론 자연과 산책을 즐기는 공원을 조성 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독지가가 개인 소유 땅을 헌납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수목,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명승지로 개방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정신 또한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의미 있는 곳을 탐방할 수 있게 배려한 아들 며느리가 사랑스럽기만 하다.

드디어 속초에 도착했다. 시원한 바닷가 모래벌판에는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인파로 빼곡하다. 그 속에 섞여 철썩대는 파도 소리 들으며 모랫길을 밟아본다. 코로나의 긴 속박에서 벗어난 오늘의 나들이는 그야말로 마음속 깊이 쌓인 묵은 때를 시원하게 씻어주는 보약 같은 선물이다. 점심으로 귀하고 물 좋은 모둠회로 즐기는 맛이란 최상의 식도락이 아닐 수 없다. 식사 후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롯데 리조트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바로 연결된 '외옹치 바다 향기로'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하였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계단을 한참 내려가 바다향을 즐기며 한 바퀴 돌아오는 해안 정정은 황홀함이 가히 환상적이었다. 아 잊을 수 없는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늘아!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여서 고맙다."

아들 며느리를 떠나보낸 휑한 자리에 다시 따사롭게 느껴지는 누군가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다."라는 음성. "주님! 부족한 이 딸에게 축복의 자녀 허락하시고 또한 착한 며느리를 한 가족인 연으로 맺어 주셔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 늘 그림자 되어 효도 받을 수 있는 특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날도 지켜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글 조정희 권사





단순한 표현부터 시작하자

사람의 눈은 형태에 대한 인식에 의존 합니다. 특히 사람처럼 생긴 형태나 꽃, 동물 등등 우리가 흔히 보는 대상에 대한 분별을 우선시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형된 형태거나 처음 보는 형태에 대해서는 익숙한 형태로 이해하려고 하며, 너무 난해한 경우 대상을 무시하게 됩니다. 회화에서 추상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추상화가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이나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작품을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라고 했다가 이런 그림이 160억을 호가 한다는 말에 입이 쩍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캔버스에 색으로 채워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보는 이를 눈물짓게 한다거나 어떤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혼절했다고도 합니다.

추상화는 본질적으로 형태의 파괴와 무질서, 무개념입니다. 추상화를 이해 못한다고 미적 감각이 둔한건 아닙니다. 다만 작가와 예술적 주파수가 안맞을 뿐입니다.



잭슨 폴록의 '제19번'.



마크 로스코의 'Orange, Red, Yellow'

최근 사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의견이 난무합니다.

'사진의 본질은 사실주의다. 외곡하지 말자' 또는 '사진도 예술이다 작가의 표현에 한계를 두어선 안된다'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1800년도부터 사진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뿐 결론은 어떤 표현이든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사진의 본질적 사실 묘사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사진에 대한 깊이감이 생기면 그 이후에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진은 형태의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①관찰 ②균형 ③질서 ④묘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사진 표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분과 전체를 보는 눈, 형태와 배경을 보는 눈, 단순과 복잡을 보는 눈, 구상과 추상을 보는 눈, 구조와 형상을 보는 눈, 묘사와 왜곡을 보는 눈도 사진 표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성을 인지하는 눈 입니다. 시각의 단순성은 시지각의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진의 기본입니다.

회화는 그려넣기 즉, 더하기라면 사진은 단순성을 표현하는 빼기입니다.



사진은 시선의 방향을 단순화 하는게 좋습니다. 사진은 난해하거나 시선이 분산되면 사진이라는 특성상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은 한 곳을 주시하도록 의도하는게 좋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위의 사진은 꽃을 이리저리 쳐다 보느라 눈이 분주해 지고 아래의 사진은 꽃 한 송이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사진 보다 시선이 단순한 사진이 오래 시선을 이끕니다.

사진은 감정의 파장이다

한 장의 사진은 무엇을 찍었건 어떻게 찍었건 간에 사진은 그 사람의 감정적 표상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감정이 하나 되어 나타난 어떤 것입니다.

사진은 세상 앞에 섰던 누군가의 감정의 울림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 새겨진 감정의 파장입니다.

사진강의를 하다보면 수강생들로 하여금 사진을 제출할 때마다 검사받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래서 쑥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사진 제출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

사진은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담는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업에서도 사진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의 감정을 내가 판단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기술적 미숙함에 의해 표현이 조금 부족할 때 단순히 첨언하는것에 그치는 것이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은 예술이다. 예술은 정답이 없다.



소양로 기왓골에서 만난 초인종이다. 요즘은 셋방살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어릴 때 어머니와 셋방살이를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짐이라고는 리어커 한대면 충분한 세간살이가 전부였다. 방 하나, 연탄 아궁이 하나. 그 아궁이 하나에서 밥도 짓고, 국도 끓였다. 어느 즈음이었나 새로 이사간 집에는 부엌이라는 것이 있었다. 방과 부엌이 연결된 작은 문도 있어서 식사 때가 되면 그 문으로 밥과 반찬들이 옮겨졌다. 백열등 밑에서 보는 따스한 밥상. 옆방의 초인종이 울린다. 어머니와 난 아무렇지 않게 밥숟가락을 든다. 우리집에는 초인종이 없었다.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띵~동~ 그 때나 지금이나 그 소리가 그립다.

사진은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진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소재를 찾는것이 좋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추억속에 있다.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을 대변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게 좋다. 약사동, 교동, 효자동 등 아직 춘천에는 옛 골목들이 남아 있다. 그 골목 한귀퉁이에 쪼그려 앉아보라. 저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를 끌고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것이다.



태백 장성에 볼 일 보러 갔다가 오래된 아파트 앞에 쌓여있는 연탄을 보았다. 그 앞 부서질것 같이 오래된 시멘트 바닥에 작은 풀 한포기 피어있다. 연탄 앞에 놓인 생명. 어머니는 이사를 가면 늘 아궁이부터 손을 보셨다. 나무와 종이를 태워 방안으로 연기가 새어들어 오는지 점검 하셨고, 온기가 구들을 잘 달구는지 확인하셨다.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손보신 아궁이들은 연기가 방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았고, 방바닥도 늘 따끈따끈했다. 그 때만해도 연탄가스 중독은 무시무시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궁이를 손보면서 그 방안에 놓인 작은 생명을 보살폈던 걸까?

세상과의 교감

사진은 세상을 마주하는 작업이다. 세상과 나름의 교감을 통해 바라보는 피사체에 대한 느낌을 담는 과정이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여야 한다. 낯선 곳일수록 좋다 그래야 하나 하나 새로운 교감을 할 수 있다.

차를 타고 다니것 보다 걸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걷다보면, 그리고 혼자 걷다보면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글 이인호 집사



늙은 의자

최 수 경 집사

내게는 다리 하나 고장 나 흔들거리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늙은 의자는 앞마당 뜰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앞산 봄꽃을 보았고
아버지가 앉아 서산 노을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내가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억들만 앉아 있습니다.
가끔은 기억의 바람이 앉아 쉬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할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며 추억합니다.
허물어져 가는 빈 의자가 쓸쓸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의자 만큼 늙었습니다.
허물어지지 않겠다고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을이 물든 나뭇잎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나뭇잎으로 앉아 쉬어갑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저물어 가는 저녁
나의 뜰에 세월을 따라
아름답게 허물어져 가는
늙은 빈 의자가 서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처럼 의자에 앉아
엄마를 기다려 봅니다.

[제1회 석당문학상 최우수상]



[위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2023.8.6 바울의 기도,
엡1:15-20)을 듣고
은혜가 되어 마음에 받은
감동을 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손

최 수 경 집사

몰랐습니다

물에 젖어 불어터지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갈라지고
삶에 찌들어 깊게 주름진 손이
내 엄마의 손이란 것을
그 손이 오로지 나를 위해
늘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손마저 지금은 잡을 수 없는
영원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진작에 더 자주 잡아주지 못했던
소용없는 늦은 후회를 합니다

비오는 날에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는 좁은 상자 영원의 집 창으로
손을 들어 반갑게 나를 맞으며
여전히 웃고 있지만
바라보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미안함 그리움의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아
당신 앞에 엄마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
당신의 마음을 녹여 따스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때까지
엄마의 손을 쓰다듬어 주시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손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후회는 천 만 번인들 소용 없는 것이니
늦기전에 한 번 더 잡아주시라

엄마의 손을 꼭 잡아 주시라



낯선 거리와 익숙지 않은 풍광을 만나는 일은 설레고 조심스럽다. 옛 모습을 간직한 구 시가지를 걷는 일은 과거 어느 시대쯤에 서 있는 듯 시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 베트남 다낭시의 호이안이 그렇다. 200년 전쯤 시간이 멈춘 듯 건물은 낡고 남루한 채 옛 영화를 품고 있었다. 오래된 집들의 기왓장엔 이끼가 푸르게 자랐다. 거리는 수 세기쯤 과거로 돌아가고 상인들도 그때 같다. 1월 하순, 오래 계획했던 가족여행을 떠났다. 가족해외여행은 남편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다. 더 나이 들면 자식들의 짐이 될 것 같아 내년쯤 가려던 여행을 앞당겼다. 초등학생이 되는 큰 손녀와 여섯 살 둘째는 비행기를 탈 것이란 기대로 들떴다.

투본강 하구의 호이안은 베트남 중부의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도시다. 7~10세기 무렵 중국과 인도, 아랍을 잇는 항로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였다. 16~18세에는 국제교역항으로 포르투칼과 네덜란드 상인까지 왕래하던 곳이다. 호이안은 지아롱 황제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프랑스 루이 16세와 조약을 맺으며 다낭을 프랑스에 할양했다.



호이안의 왕성했던 교역은 다낭으로 넘어갔다. 호이안이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투본강 하류의 지

형변화가 원인이었다. 남중국해의 파도가 실어온 모래가 퇴적돼 삼각주를 이루며 큰 배가 정박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200년 동안 베트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쟁 중에도 미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유서 깊은 옛 도시의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호이안의 구시가는 노랗고 붉은색의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와엔 이끼와 잡초가 무성하나 그것 자체로 화사하고 멋스럽다.



오후 4시~10까지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다. 전기차를 타고 마을 입구에 내리면 천천히 걸어서 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바쁠 것이 없다. 시계는 개인의 시간에 맞춰 멈춘 채 느린 산책을 유도한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든 채 관광객을 구경하고 간간이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보낸다. 시클로를 타고 빠르게 호이안을 돌아볼 수 있으나 걸으며 돌아보는 것이 더 좋다. 시클로에는 경적이 없어 운전자들은 소리치며 사람들 사이를 오간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아 웃어줄 만큼 정답다. 마을에 살아왔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고 짐작하며 한 시대를 살아낸 그들의 삶을 그려본다.

쩐푸거리 중간 외국인 동상이 하나 있다. 카지미에르츠 크비아트콥스키(1944~1997)는 폴란드 건축가로 호이안과 후에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베트남의 문화를 사랑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격상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다.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호이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해거름에 호이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가 저물면서 시작되는 호이안의 야경을 보려는 사람들이다. 투본강에 색색의 등을 띄우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 길고 작은 배에 올라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강가로 모여들었다. 필자도 황금색 등을 띄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필자는 여행 기간 내내 아이들의 손을 놓칠까 걱정하며 다녔다. 제 어미와 아비가 있음에도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노파심인가? 언제 다시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와 다니면 모처럼의 여행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면서 여행 다니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한다. 이번 여행으로 평범한 가장의 작은 소망을 이뤘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떠났던 여행이다. 손녀들의 유년의 뜰에 가족이 함께 한 이날들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

글 전경해 권사





젊은 날 갖지 못했던 부부만의 시간 카메라로 시작해

부부 사진작가 지헌익 집사-전명자 권사

카메라를 장착하고 기다린 지 서너 시간. 달빛이 소진할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숨소리가 헤아려지도록 천지에 고요가 깃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한 모퉁이에서 조리개를 열어 놓았다. 억겁의 시간 너머 파인더에 닿은 별빛들이 모래알처럼 쌓였다. 눈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빛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 지헌익(76.춘천시 죽림동)집사, 전명자(71)권사 부부다. 어둠이 내린 산등성이나 벌판, 계절 이른 바닷가와 계곡을 찾아 떠난다. 젊은 날, 좀처럼 갖지 못했던 부부 만의 오붓한 시간을 환갑이 넘어서야 누리고 있다.



응봉공원야경

전 권사는 결혼 전 1974년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77년 지 작가를 만나 결혼했으나 시댁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다. 종교가 달랐으나 핍박은 없었다. 전 권사는 작심하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다. 수년 후 시어머니는 새벽기도를 다닐 만큼 독실한 크리스찬

으로 변화됐다. 70세 명예 권사로 은퇴하기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전 권사는 "남편은 사형제의 맏이다. 시댁 식구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친정 언니까지 전도했다."며 "전도했던 박완주 장로님 부부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 등 부족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고 했다.

40여 년 사진가로 입지를 굳혀온 남편과 달리 전 권사는 15년 전 사진에 입문했다. 직장과 육아, 노모를 모시고 바삐 살아오느라 엄두도 못 냈던 취미다. 지 작가는 40년 전 친구의 권유로 사진을 시작했다. 카메라를 구입해 춘천사진동호회에 입회해 활동을 시작했다. 지 작가는 "카메라를 통해 보는 피사체와 맨눈으로 보는 느낌은 다르다. 촬영지를 찾아다니고 카메라에 담은 풍경과 사물이 만족스럽게 표현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젊어서는 한 가지 취미에만 몰입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손에서 놓은 것은 아니지만 골프, 테니스에 빠지고 15년 동안 마라톤을 하는 등 다양한 취미를 섭렵했다. 패러글라이딩에 매료돼 수도 없이 활공장을 오르내렸다. 50대 중반 바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대퇴부 골절로 수개월간 야외 활동을 못했다.

그가 다시 사진을 시작한 것은 50대 후반부터. 집에 개인 암실을 만들어 흑백 사진을 인화할 정도로 빠져들었다. 전국 유수의 공모전에 사진을 출품해 입상 경력을 쌓았다.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환갑 기념으로 첫 개인전 '지구촌의 빛과 그림자 I '을 열고 사진집을 발간했다. 지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은 6년 전 칠순을 기념해 열었다. 국내외 풍경 사진을 모아 '지구촌의 빛과 그림자 II' 를 발간하고 지난해 강원도의 풍광과 은하수와 별 일주의 사진을 모아 세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춘천대교

3년 전 지 작가에게 복병이 찾아왔다. 원인 모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딱히 병명을 밝혀내질 못했다.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서울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거듭되는 검사에 지쳐갈 무렵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은하수 촬영을 위해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한 달 넘게 하면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했다. 전 권사는 추운 날에도 무거운 장비를 들고 촬영지로 떠나는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 "아무리 추워도 촬영지로 갈 때는 눈을 반짝거리며 집을 나선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다니며 밤새 은하수와 별 일주 사진을 촬영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아도 나이는 어쩔 수 없다." 지 작가는 치료에 전념하느라 1년 동안 카메라를 잡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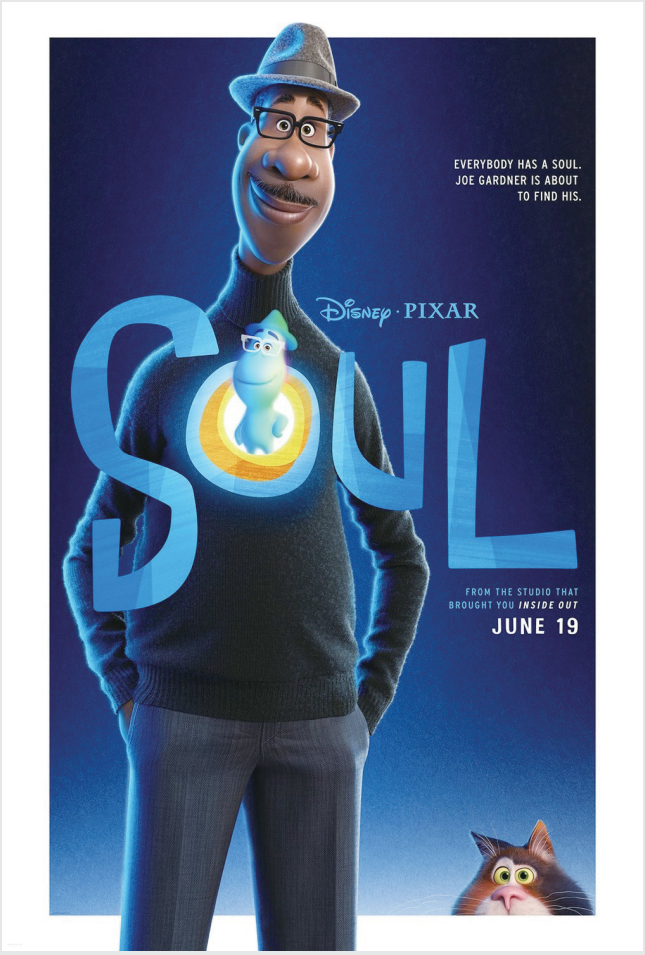
진을 건질 수 있다는 기대로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았다."며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창조주의 신비,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했다. 지 작가 부부는 언제랄 것 없이 카메라를 메고 나선다. 내일이면 과거가 될 오늘을 카메라에 담는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글 전경해 권사

전 권사는 40대 초반 20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여성의류매장에서 함께 일하며 30년 동안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사진을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오지 않았다. 전 권사는 "강원대 사진반에 등록했다. 사진을 배우면서 남편과 친구삼아 촬영지를 다니기 시작했다."며 "함께 다니면 말동무가 돼 심심하지 않아 좋다. 젊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질 못했다. 남편의 조언을 듣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했다. 지 작가 부부는 좋은 사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다. 지 작가는 "4~5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를 통해 장노출, 타임랩스(저속촬영) 등 사진 기법에 관해 알려주고 있다. 촬영은 카메라로 하지만 포토샵은 사진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40년 동안 촬영 현장에서 체득한 기술적인 문제, 촬영기법 등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지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과 사진집은 아내와 동행하며 촬영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변화무쌍한 바다의 풍광을 담아내고 늦도록 해변에서 별 무리의 이동을 촬영했다. 전 권사는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은하수를 기다리는 마음은 특별하다. 힘들어도 아름다운 사



이 작품은 잠시 멈춰있는 내게 잔잔한 위로가 되어준 고마운 영화다. 다친 내면의 아이를 살펴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동안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항상 뒤로 밀려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내가 영화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영혼이 바뀐 주인공(조 가드너)과 영혼22의 모습이 나타난다. 영혼22는 우연히 재즈 피아니스트 조 가드너의 몸에 들어가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우연으로 만난 인생의 모든 순간을 JAZZING 이라고 표현한다. 사실 재징(JAZZING)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영혼22에게는 모든 순간이 처음이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가며 새로움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JAZZING 이라는 신선한 표현으로 살아낸 것 같았다. 매번 새롭게 표현될 수 있는 JAZZ라는 장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유와 아름다움 속에 피어난 수많은 명작처럼,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 속에 우리네 인생이 걸작으로 완성됨을 말이다. 그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음의 아름다움을 흠뻑 머금어봤던 작품 속 영혼22는 영화 말미쯤 진정 인생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잠시였지만 풍성하게 누렸던 우연의 시간과 같이, 평생을 JAZZING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금세 영화에 몰입되어 영혼22라는 캐릭터에 나의 삶을 투영시켜보게 되었다.

나는 20대에 많은 시간을 삼켜버린 무기력과 우울로, 압도적인 '삶의 동기', '열정적인 삶', '열심'을 갈망했다. 삶의 이유와 목표가 없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했던 것 같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큰 동기부여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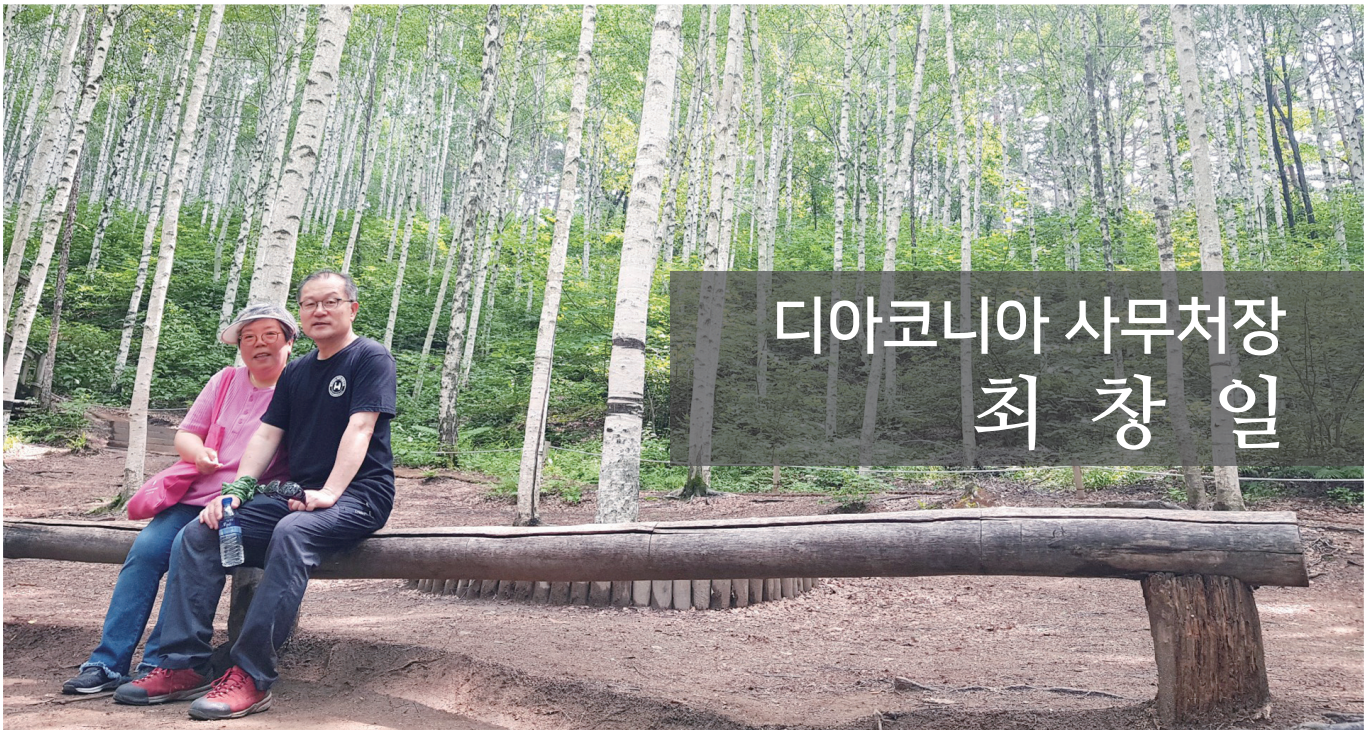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며 많이 지쳤던 나에게 크게 와닿은 말이다. 대단한 목적지와 그럴듯한 목표 의식이 희미하지만, 꼭 분명한 어떠함이 없더라도 나에게 허락된 나날의 소소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아닐까? 라는 물음표를 던져본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거나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름다운 자연과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이런 소소한 시간이 모여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답변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때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가슴에 멍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작품이다.

이유 없는 분주함과 무기력한 일상에 잠식되어 잠시 잊고 있었지만, 나에게 허락된 찰나의 행복에 감사할 수 있는 어른, 그런 인생으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글 **박주은 청년**



디아코니아 사무처장
최 창 일

가족 소개

우리 집은 후평동에 위치한 광명주택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어서인지 젊은 부부(초등학생 자녀를 둠) 한 가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이분들은 주택 바깥 앞뒤 공간을 활용하여 봄이면 소일거리 삼아 꽃도 심고 고추, 상추도 심습니다. 그런 활동도 버거우신 분은 1층 입구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며 졸기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오랜시간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도심 한 공간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어머니 : 남부제일교회 1993년 창립 멤버이면서 살아계신 전설. 87세로 호기심이 아직도 가득한 할머니겸 어머니 그리고 명예장로. 새벽기도 달인.

나 : 사회복지공무원과 월드비전에서 30년간 근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끄적이다가 우연한 기회에 스승을 만나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부족하나마 초대작가로 등단하게 되었음. 사실 은퇴하면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며 그림을 그리며 평안을 누릴 것을 꿈꾸었지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나보다.

아내 : 자칭 파종지는 경상도 재배지는 대전, 출하지가 강원도라는 천상 촌여자. 중학교때 미션스쿨을 다닌 덕에 인생 모토를 "남을 위해 살자"로 삼아 소싯적부터 자원봉사를 하며 결국 사회복지사로 현장과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2년전 은퇴. 은퇴후 일탈(?)을 꿈꾸다 아마추어 연극을 시작하고 올해는 희곡쓰기에 도전 중에 있음.

세자녀 :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주 예민한 장녀와 아주 둔감한 차녀, 그리고 어떤 것도 맛나게 먹을 줄 아는 막내 아들 하나. 믿음은 좋아 보이나 코로나 이후 침체기.

자식들은 아무도 엄마 아빠가 평생 일해왔던 사회복지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두 딸은 전공분야를 혹시라도 부모가 연관 지을까봐서 인지 대학 졸업 후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만 자신의

전공분야를 못떠나고 새벽기도 시간보다 빨리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녀 셋은 상호 존칭 없는 영어식 대화를 하는 무개념의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다행인 건 직장유형도 관심분야도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이 셋 관계의 안정성 유지 요인입니다.

춘천동부교회로 가는 길

2021년 12월 31일 월드비전 정년퇴직 후 꿈꾸던 백수의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거의 허리 디스크 치료와 온갖 잔병치레로 뜻하지 않은 환자 코스프레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 숲 해설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주, 가족들은 숲 해설이라 쓰고 스페셜이라 읽는다) 다양한 식물들을 익히고 그들의 생존전략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섬세한 창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롭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고, 숲을 누비며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멋진(?) 포부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미루시고 의외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에서 사역자를 찾는다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지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건강문제도 있고, 기관장만 20년 가까이 했으니 실무 일을 잘 한다는 건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훌륭한 분들이 거론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감리교에 적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 청년회 등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직업특성상 인사발령으로 외지에 나가 있었던 적이 많았고, 외부활동과 타교회 사역이 많아 본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늘 갈급하고 영적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사무처장으로 함께 일을 하자고 연락 받은 후 대표이사이신 김한호 목사님께 인사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사역에 함께하자고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23년 2월 1일부터 법인의 사역과 교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

동부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김한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우리 부부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지만 은혜 없인 법인 사역도 감당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사라지고 있었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닮아 새벽기도로 아침을 열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부부는 올빼미 같아서 밤샘은 해도 새벽엔 못일어나는 체질임)

디아코니아 1,2단계를 연이어 졸업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단계별 교육 중에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이 교회를 기반으로한 봉사와 헌신 즉 디아코니아에 그 뿌리가 있었던 것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사회복지가 일반 학문으로 별도로 존재했던 것으로만 알아 왔던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복지학에서는 그러한 기초를 아주 미미하게 다루고 때론 전혀 다루지도 않고 지나쳤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마저 들기도 했지만 한편 디아코니아가 더욱 새롭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한 헌신의 결과입니다.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의 수탁사업(춘천동부노인복지관,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 퇴계꿈자람나눔터)은 각 기관마다 기관장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도 했지만 탁월하게 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부교회가 후원사업, 수탁사업, 장학금지원사업을 법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인 사업은 춘천시청과 지역사회의 평가도 좋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위탁기관을 우리 법인에서 신청해 줄 수 있는지도 타진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허투루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었고 아끼려고 애쓴 흔적이 상처처럼 아프게 보였습니다. 풍족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족한데서 주님의 기적은 빛을 발합니다.

아내는 최적화된 동부교회 수어 통역사

아내는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친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동부교회 교인으로서 무언가 한가지 봉사를 했으면 했는데 동부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섬김을 실천해 왔음을 교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농아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통해 봉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뜻을 말씀드리니 목사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어통역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아내는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부부의 기도와 예배 생활의 변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일예배 동영상(수어 통역이 된)을 농아인 친구들과 단체에 보내면서 농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동부교회에 최적화된 수어 통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할 줄 모르는 얼굴은 수수하고 옷도 수수(수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검은색만 입어야 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모든 성도님이 목사님께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수어는 필요한 사람이 봐야 잘 보이나 봅니다. 아내는 통역을 위해 주일 3부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은혜롭게 표현하기 위해 열심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곳 동부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 부부가 해왔던 복지사업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김한호 위임목사님과 함께 미력이나마 도울 기회가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나 봅니다. 이제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워 쓰러질 것만 같았던 여름이 가고
무성한 잎들은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익어갑니다.

동부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부부도 어우러지고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 바람 부는 인생의 겨울에도 디아코니아로 축적된 겨울 눈에서 부활의 싹을 틔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최창일 사무처장

디아코니아 단신

4월 찾아가는 봉사당회

2023년 첫 번째 찾아가는 봉사당회가 4월 1일(토) 당회원과 안수집사회가 협력하여 참여한 가운데 경증 장애 어린이 재활시설인 강원재활원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의 대청소를 실시하여 화단과 배수로의 낙엽과 쓰레기들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건물 내부의 천장과 바닥, 유리창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춘천동부교회의 찾아가는 섬김이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22기 교육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22기가 지난 3월 19일에 시작하여 4월 22일로 모든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수는 총 33명이 신청하였고 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22기 수료자들이 동부교회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일 디아코니아예배

16일(주일) 오후 2시 강원재활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예배를 함께하는 '장애인주일 디아코니아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춘천동부교회의 '장애인주일 디아코니아 연합예배'는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의 '함께 놀자(요 9:1-3)'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고, 디아코니아 3단계 교육생들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교육중인 디아코니아 1단계 교육생들도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여 디아코니아 정신을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한호 목사님은 "진짜 장애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진짜 장애"라고 하시며, 장애인 주일을 맞아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아코니아 2단계 12기 교육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2기 교육이 5월 14일 주일 개강하여 6월 23일 금요일 꿈의 땅, 6월 24일 토요일, 수료식까지의 귀한 교육의 여정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교육 심화 과정인 2단계 과정임에도 27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매 주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귀한 교육을 경청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디아코니아예배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줄어가는 참전 용사분들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 해는 1분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주일 환경정화활동

전교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교구와 청년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암호 일대를 청소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환경주일 디아코니아예배

6월 4일(주일)에는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로 결단하는 디아코니아예배를 드렸으며, 후속활동으로 개인마다 씨앗봉투를 배포하여 홈파밍에 참여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며 잘 지켜나감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 2단계 12기 홈에버그린 봉사

6월 17일(토)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2기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인 홈에버그린에 방문하여 견학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봉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부 단신

종려주일, 성찬식

4. 2.(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의 위기,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과 사랑의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속죄로 인한 회복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온 세계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023 부활의 아침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맞이하기 위한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는 40일>의 사순절 여정은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으며,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 세례입교식

4. 9.(주일) 2023년 부활주일을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새 생명을 의미하는 계란을 나누며 부활의 의미와 감사를 되새겼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뮤지컬 칸타타, 기적

4. 9.(주일) 2023 부활절을 맞이하여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가 부활절 뮤지컬 칸타타 <기적>을 공연했습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격이 되었던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승리가 우리안에 늘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4월 23일 찬양예배를 안수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회장으로 섬기시는 박하영 안수집사님의 인도와 부회장 윤태원 안수집사님의 기도 총무 박성부 안수집사님의 성경봉독 안수집사회의 찬양이 있었으며 강사로는 경안대학원 대학교 총장 박성원 목사님께서 <디아코뮤니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다하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주일

5. 7.(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예배가 5월 첫 주일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교회의 84번째 생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금은밤 - 3040구역 주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12일에 진행한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은 3040 구역이 주관하였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3040구역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아울러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5월14일 주일예배를 어버이주일로 드렸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채색옷'이라는 제목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존경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선물을 전했습니다.월 4일(주일)에는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로 결단하는 디아코니아예배를 드렸으며, 후속활동으로 개인마다 씨앗봉투를 배포하여 홈파밍에 참여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며 잘 지켜나감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헌신예배

2023년도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헌신예배가 5월 21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습니다. 법인 임원진 및 법인 산하기관인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 퇴계꿈자람나눔터의 직원들 50여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법인 상임이사 박완주장로의 인도와 심우섭장로(법인 이사)의 대표기도, 송태욱 집사(법인 감사)의 성경봉독과 강서갈릴리 교회를 섬기시는 안옥섭 장로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오세(2453) 예배

6. 11. (주일) 춘천동부교회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함께 이사오세(2453)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해 이사오세 예배는 "I am SOLOved" (나는 매우 사랑받는 사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너무나 힘들고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위임목사님의 설교 본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배경으로 준비한 꽁트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었으며,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

6. 25.(주일) 2023년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행복한 숲교회(1교구, 3교구), 서화중앙교회(2교구), 서흥교회(4교구), 마중물교회(5교구), 원주참된교회(청년부)로 총 5개 농촌 및 도심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한 모든 교회와 춘천동부교회가 이후에도 긴밀한 사역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각 지역마다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월 금은밤-경배와 찬양팀 주관

6. 30. (금) 6월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이 30일 저녁 8시 '연합경배와 찬양팀'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역대상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팀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섬기는 찬양팀으로 세워지기를 권면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동부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오직 주의 영광과 자비와 은혜, 크신 사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단신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

5월7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박채온, 이라하, 정혜윤 총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기를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아동세례

5월 7일(주일) 특별히 총회에서 제정한 아동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자라길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입교예식

5월 14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입교예식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총 4명의 학생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춘천동부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연합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교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 되어지고 훈련되어 지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축복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가 7월 8일 영아부를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은혜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응원과 기도해주세요.



교회학교 교사헌신예배

7월 2일 주일저녁 교사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는 안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학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1:6-8의 말씀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사들이 그럼에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기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분들의 헌신과 양육, 기도와 수고로 다음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 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꽁트, 신앙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경강역 레일바이크 단풍터널

2023년 통권 84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3년 10월 15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정 훈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박주은, 윤예영, 이정민

주소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